

Point 1. 수의 일치(주어/동사 찾기)

1. 주어 뒤에 나오는 긴 수식 어구를 제거하자!

- ① Students who are confident about their ability to succeed in school tends to perform better on academic tests.¹⁾
- ② One difference between winners and losers are how they handle losing.²⁾

2.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 ③ Each habitat is the home of numerous species, most of which depends on that habitat. ³⁾

3. 도치 구문을 잘 살펴라.

- ④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as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⁴⁾
- ⑤ Between the two wine glasses were a small empty box. It had contained a gold ring with a small diamond that his grandmother had given to him.⁵⁾
- ⑥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does the eye and camera have anything in common.⁶⁾

4. to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절, that절, what절, whether절은 단수 동사를 사랑한다.

- ⑦ To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require strong determination.⁷⁾
- ⑧ Understanding how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are vital to properly assess current global warming trends.⁸⁾

5. 부분[분수]을 나타내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일치시켜라.

- ⑨ Most of the world's permafrost have been frozen for millennia, trapping massive amounts of carbon in organic material.⁹⁾
- ⑩ Some of the early personal accounts of anthropologists in the field makes fieldwork sound exciting, adventuresome, certainly exotic, sometimes easy.¹⁰⁾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대도시의 빈민가로 내몰렸다.)

→ 주어가 복수인 large sections 이므로 복수형 동사 were의 쓰임은 어법상 적절하다.

The manufacturing towns of the north of England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s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as Kingsley's *Alton Locke*, Gaskell's *Mary Barton*, and Dickens's *Hard Times*.

영국 북부의 제조업 도시들은 몇몇 최악의 사례를 제공하며 Kingsley의 *Alton Locke*, Gaskell의 *Mary Barton*, Dickens의 *Hard Times*와 같은 사회의식이 강한 소설에 영감을 주었다.

→ 과거 동사 provided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과거 동사 inspired의 쓰임은 어법상 적절하다.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showing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 whose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

(남부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런던이 있었는데, 이곳은 과잉 인구와 무계획적인 성장의 결과인 모든 범죄, 악, 비참함을 보여 주었다.)

→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가 선행사이며 result의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2024년 10월

They may use comets as stepping-stones, some of which are only loosely bound to our sun because they reach almost halfway to the nearest star system, Alpha Centauri.

(그들은, 그중 일부가 우리의 태양에 그저 느슨하게 묶여 있는 혜성들을 (그들이) 디딤돌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장 가까운 항성계, Alpha Centauri에 거의 (거리상으로) 중간에 이르기 때문이다.)

→ 과거분사[= 형용사] bound를 수식하는 부사 loosely의 쓰임은 어법상 적절하다.

Interstellar migrations will depend on as yet unimagined technologies for driving ships, for maintaining sustainable environments, and for putting humans into hibernations last for centuries.

(성간(聖間) 이동은 우주선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을 수 세기 동안 지속되는 동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아직 상상이 되지 않는 기술에 의존할 것이다.)

→ hiberna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하며, last는 자동사이므로 현재분사 lasting으로 고쳐야 한다.

Interstellar journeys will also depend on the existence of groups willing to risk long and dangerous voyages with little or no hope of returning.

(또한 성간(聖間) 이동은 돌아올 희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길고 위험한 여정의 위험을 무릅쓸 의지가 있는 집단들의 존재에 달려 있을 것이다.)

→ be willing to ~에서 to는 전치사가 아니라 to 부정사를 이끄는 to이므로 뒤에 동사 원형 risk의 쓰임은 어법상 적절하다.

<최근 5년 수능 기출 어법 다시 보기>

2020학년도 수능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inhabited their world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이런 측면에서 고려될 때, 초기 인류가 자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집착한 것은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 주절의 주어는 the visual preoccupation이고 술어 동사인 becomes이다. 따라서 the nonhuman creatures를 수식하는 분사구가 이어져야 하는데, 뒤에 분사의 목적어인 their world가 있으므로, inhabited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인 inhabiting으로 고쳐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There is no way to know 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피험자의 반응이 집단으로서의 인간 반응의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유도해야 하는데, 완전한 형태의 절이 이어지고 문맥상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what을 whether로 고쳐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but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세포의 물질대사와 구조가 복잡할 것임은 놀라운 것이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꽤 간단하고 논리적이다.)

→ '~라는 것'이라는 뜻의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would 앞까지의 부분이 절의 모든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What을 쓸 수 없으며 접속사 That으로 바꾸어야 한다. What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이어져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 relative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and to fashion's own history.

(옷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이고, 패션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패션 자체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들을 현재에 위치시킨다.)

→ 주어인 people이 자신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므로 them은 재귀대명사인 themselves가 되어야 한다.

2024학년도 수능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s until they succeed.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제스처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성공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얼굴로 실험한다.)

→ 관계대명사 which 뒤에 이어지는 절에 문장의 필수 성분이 모두 있으므로, which앞에 전치사 with를 더해 with which로 바꿔 써야 한다.

<마지막 정리>

- ①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 주어를 찾아라, 주어가 복수면 복수 동사를, 단수면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
→ 동사가 올 자리인지 확인 → (진짜 동사가 주변에 있으면) 분사 또는 to 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 ② to 부정사에 밑줄이 있으면 → 동사가 쓰여야 할 자리인지 고민하자.
- ③ 현재분사에 밑줄이 있으면 → 과거분사 또는 동사로 고쳐야 할지를 고민하자.
- ④ 과거분사에 밑줄이 있으면 → 현재분사 또는 동사로 고쳐야 할지를 고민하자. 동사의 과거형과 형태가 같은 경우에 특히 유의하자.
- ⑤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있으면 → 관계부사로 써야 할지 또는 그 앞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라.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부사구가 빠진 문장)이 이어지면 관계부사를 써야 한다. '전치사+관계대명사'에 밑줄이 있으면 넘겨라. 정답이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
- ⑥ 관계부사에 밑줄이 있으면 → 관계대명사로 써야 할지 판단하라. 뒤에 오는 문장에서 (대)명사가 빠졌으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선행사를 뒤로 옮기고 생각해보자.
- ⑦ what에 밑줄이 있으면 →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대명사가 빠진 형태가 이어지면 맞는 것임.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음(관계 형용사).
- ⑧ that에 밑줄이 있으면 → 선행사[명사]가 없으면서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면 동격의 that, 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잘 쓰인 것임. 앞의 단수 명사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 that의 용법도 기억할 것. 복수형이면 those가 되어야 함.
- ⑨ 능동태/수동태에 밑줄이 있으면 → 해석을 통해 수동/능동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잘 따져보자.
- ⑩ 대명사에 밑줄이 있으면 → 단수형/복수형 확인,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면 재귀대명사로 써야 한다.
- ⑪ 형용사/부사에 밑줄이 있으면 →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가 올 자리인지, 동사[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자리인지를 판단하자. 부사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ly로 끝난다고 다 부사는 아님(형용사도 있음)

*p.1의 32문장을 열심히 읽어서,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자.

*that의 모든 것(p. 34), what의 모든 것, how의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읽자. (문구세트 참고, 없으면 Pass!)

♡ 한눈으로 보는 2024년도 어법 기출 항목

빈출 항목	2023년	2024년					
	수능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주어-동사 수 일치		주어-동사	관계사절 속 의 수일치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관계사	전치사+관계 대명사	전치사+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 용 사 whatever ·주격관계대 명사 that	관 계 부 사 where	관계사절 속 의 수일치	주격 관계대 명사	주격관계대명 사
분사구문	분사구문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현 재 분 사 lasting / traveling (2회)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 법		be willing to~
동명사		동명사 주어		전치사 to의 목적어			
병렬구조						병렬구조	
대명사	지 시 대 명 사 those	재귀대명사	its	them			
형용사·부 사/비교		형용사[과거 분사]를 수식 하는 부사				형용사[과거 분사]를 수식 하는 부사	형용사[과거 분사]를 수식 하는 부사
태				are given hints			
조동사	동사를 강조 하는 do						
문장구조	목적격 보어 로 쓰인 to 부정사				명사절[의문 사절]		

that의 모든 것

1. 지시대명사:

The digestive system of the go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heep or the cow.

2. 지시형용사:

Later that day, my manager called me into her office.

3. 지시부사:

I can't walk that far.

4.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① 주격:

He contracted a strange illness that confined him to well-heated rooms for the rest of his life.

② 목적격: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 upon entering this garden is that the ankle-high grass is greener than that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4-1. It is ~ that 강조 구문 [주어, 목적어, 부사구가 강조됨]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5.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① 주어:

It is possible that he has not received the letter.

② 목적어:

Aristotle thought that moving objects kept moving only if something kept pushing them.

③ 보어:

One reason apologies fail is that the “offender” and the “victim” usually see the event differently.

④ 등격:

What disturbs me is the idea that good behavior must be reinforced with incentives.

cf. I know nothing about him except that he lives next door.

Men differ from animals in that they can think and talk.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전치사는 except, in 뿐이다. *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cf. Do you know the motive in that Russian composition they are playing?

6.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① Bob is such a nice person that everybody likes him.

② Jeremy became so stressed that he even dreaded going into his classroom.

③ I have been working hard so that my family can enjoy an easy and convenient life.

④ Now (that) the kids have left home, we've got a lot of extra space.

What / Whatever의 모든 것

* 명사 family(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는 하나의 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1. 의문대명사

What is your name?

What is so special about walking in the woods or resting in bed?

What had I done to Uncle Joe, the man who had raised me for twenty years?

1-2. 의문형용사(한정사)

What route is probably the fastest?

What kind of world will our children have to live in?

What kind of world will 2025 be?

1-3. 간접의문문

Now I know **what** it is like to live in paradise. (← **What** is it like to live in paradise?)

I asked her **what** her name was. (← I said to her, "What is your name?")

2. 관계대명사

What is considered a status symbol will differ among countries.

What they found was those born in the autumn were nearly 30% more likely to get asthma.

This is exactly **what** I wanted.

2-1. 관계형용사

I can solve **what** problems you have.

He gave me **what** (little) money he had.

4. 복합관계대명사(양보절)

Whatever you say, I won't believe you.

Whatever happens, I won't be disappointed.

How / However의 모든 것

* 부사 family(부사, 부사구, 부사절)는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한다.

1. 의문부사

How old are you?

How many marbles are there?

How much did you drink last night?

How can you make your child creative?

1-2. 간접의문문

Eating quickly while performing other tasks prevents us from realizing **how** much we are eating.

Mr. Brown asked the students to guess **how** many marbles there were.

Ellen Langer learned from her mother **how** to prepare a roast.

This is **how** he solved the problem. (관계부사로 볼 수도 있다.)

2. 복합관계부사(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주절 뒤로 보내도 됨.)

However fast you run, you cannot outrun me.

However qualified a person may be, he will not be able to make the best use of his qualifications without concentration.

However we may go, we must get there by six.

3. 감탄문

How lucky I am to have friends like you in my life!

How (surprisingly) well she dances!

How he snores!

4. 접속부사

However, some modern linguists argue that grammars should describe the actual usage of the language.

- 16)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광선을 타고 있는 꿈을 꾸는 동안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 [that]
dreaming의 목적어가 필요하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 17) 광고에 동물을 이용할 때 주요한 고려 사항은 동물이 더 인간같이 보여야 하는지, 덜 그렇게 보여야 하는지이다. [whether]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what은 쓸 수 없다. 문맥상 whether가 적절하다.
- 18)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that]
believe의 목적어가 필요하며 dropping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므로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 19) 그 작품에서 Buffon은 신세계(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동물들은 유럽의 토착 동물보다 작으며, 아메리카의 동물 종의 수가 더 적고, 심지어 유럽의 길들여진 동물 종들도 대서양을 건너면서 크기와 힘이 줄어들었다는 편향된 의견을 표명했다. [모두 OK]
that절은 완전한 문장으로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the biased opinion과 동격을 이룬다. those는 native animals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이다.
- 20) 지위 상징은 그 주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일반적으로 값비싼 또는 희귀한 사물 같은 것이다. [that]
선행사가 something이며, 동사 indicates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usually ~ object'는 something과 동격이며 삽입구이다. 콤마 뒤에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21) 불교의 비유는 생태 환경으로부터 나온 이런 다소 냉혹하고 과학적인 교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brings]
문맥상 this ~ 이하가 목적어이고 to life는 부사구이다. 따라서 능동형인 brings를 써야 한다.
- 22)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을 잘 해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be valued]
문맥상 수동태인 be valued가 되어야 한다.
- 23) 오늘 당장 새로운 연극이 (상연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미래에 재공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given]
new plays가 기회를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 24) 인간의 정신은 그것의 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 내려는' 내장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 [coming]
문장의 동사는 has이며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2개가 올 수 없다. 문맥상 information이 나오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coming을 써야 한다.
- 25) sacred lotus라고 불리는 수생식물은 자신의 번식에 필요한 곤충을 이롭게 하기 위해 온도를 조절한다. [called]
A water plant가 '불리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26) 놀이와 일은 둘 다 건강에 좋은 행동이며 정서적 분노로 초래된 긴장을 풀어준다. [relieving]
접속사 없이 두 개의 절이 연결될 수 없다. and they[= Play and work] relieve ~를 분사구문으로 고친 형태가 되어야 한다.
- 27) Amalfi의 작은 해안 도시의 1100 피트 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Ravello는 바다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곳으로 묘사되어 왔다. [OK]
'Ravello is located ~ and, it ...'을 분사구문으로 고친 것이다. '-에 위치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be located at ~'으로 쓴다. 우리말로로는 능동처럼 느껴지지만 현재분사가 아닌 과거분사를 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28) 갑자기 비행선은 폭풍우의 한복판에 들어서며 어둠 속에서 요동쳤고, 비는 엄청난 기세로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OK / OK]
· and it was jumping and swinging ~을 분사구문으로 고친 것이다.
· and the rain was crashing ~을 분사구문으로 고친 것이다. 주어(the rain)가 그 앞의 주어(th aircar)와 다르므로 주어를 남기고 분사구문으로 만들었다. (독립분사구문!)
- 29)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많은 일일 석유 생산량을 기록했고 멕시코와 브라질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2010년에 5개국 중 가장 낮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OK]
'with + (대)명사 + 분사[보어]' 구문에서 목적어 the lowest가 이어지므로 능동의 의미가 있는 현재분사가 적절하다.
- 30) Tory H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기술한 것을 읽게 하고, 그다음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믿